

기관돋보기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민과 함께 존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과 함께 존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기반한 문화와 인종과 존중을 위한 각종 사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북대동 어린이환경수비대' 운영, 사회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장애인 및 청년·인 가구를 위한 '북대동' 주거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항목 전 영역에서 모두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도내 우수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전경.

당사자 중심 · 관계중심 사회복지실천의 선도기관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의 가치를 사업에 담아 실천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 영역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하여 도내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태순)은 '주민과 함께 존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개원하여 올해로 2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일평균 260여명의 인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당연히 하게 자리잡혀 있던 복지관 주도·사회복지사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의 기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당사자에 의한, 주민 주도와 주민 간 연대에 기반한 지역 중심 실천 방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춤형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강화, 이론적·실천적 활동에 대한 성찰 및 개선방안 모색, 네트워크 참여자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중장년

기대응 실천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치코밍(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아 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동의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아동 모니터링단 구성 및 토론회 개최 등 아동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여성 노인의 성 인지 감수성 의식 확장과 주체성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꽃, 꿈, 할매' 사업은 평균 연령 82세의 여성 어르신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삶의 이야기를 담아 그림으로 기록한 결과물을 책으로 제작하여 본 활동에 의미를 더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김태순 관장은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며, "네트워크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노력한 덕분에 원활한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안정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감당하며 또 믿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일자리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복지관 체계 구축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운 복지 시각지대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중장년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지체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공동사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복지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사업을 널리 알리고 복지관의 핵심 가치 전달 및 홍보를 위해 복지관 브랜딩 작업에 적극 힘을 예정이다.



여성노인 성 인지 감수성 의식확장사업 '꽃, 꿈, 할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북대동 어린이환경수비대'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서비스 실시

충북도, 맞춤형 검색부터 신청까지 '가치자람 플랫폼' 오픈

충북도는 민선 8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및 임신,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도, 시군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사업들을 한데 모아 도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2월 5일 오픈했다.

가치자람 플랫폼은 전국 최초로 거주 시군, 자녀 수를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금 관련 정책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 도, 시군에 흩어져 있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정책들을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사업들을 모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하는 시군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신청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출산육아수당, 100인의 아빠,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점 신청, 순회인구교육의 사업은 직접 플랫폼을 통하여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였다.

도는 추후 기능개선을 통하여 도·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을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업을 쉽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충북농협이 도내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원을 기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농협, 도내 취약계층 지원 성금 1억원 쾌척

뭇난이 김치 구입 후 도내 푸드뱅크 이용 대상자에 배분

충북농협(총괄본부장 황종연)이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통 큰 기부를 했다.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탁금은 충북사회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를 통해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로 전달되며 '충북 어찌다 뭇난이 김치'를 구입해 도내 푸드뱅크 이용 대상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충북 어찌다 뭇난이 김치'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뭇난이' 농산물사업 김치 브랜드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배추 재배 농가와 김치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해 생산과 유통과정을 최소화했다.

맛과 품질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해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충북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뜻이 우리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으로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황 총괄본부장과 임 본부장은 "추운 겨울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북농협은 충북지역 농축산물 판매 확대는 물론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회장은 "도내 푸드뱅크 이용 대상자에게 소중하게 전달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기부해 주신 충북농협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충북농협은 매년 농촌일손돕기, 장학금지원, 현열, 환경정화, 연탄봉사활동, 사랑의 쌀 나눔, 김장김치 나눔, 우리 농축산물 나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봉사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 청주대점 / 충북대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청주시, 도내 최초 우유 바우처 지원

취약계층 학생에 월 1만5000원... 편의점 사용 가능

청주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우유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유바우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월 1만5000원 한도로 사용 가

능한 우유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인근 편의점·하나로 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우유는 물론 가공유·발효유·치즈 등 유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6~18세(2005~2018년생)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가정 자녀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희망자는 거주지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즉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다. 박상용 시 축산정책팀장은 "우유바우처 시행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유제품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여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청주시는 스톱폭력·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3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최근 스톱폭력·교제폭력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고 신종여성폭력 대처방안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스톱폭력치료회복프로그램,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통합상담소 교제폭력 종사자 인력 추가 예산을 확보해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에는 모두 1억270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스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한다. 또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의료 법률 연계 지원,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종여성폭력에 대비

해 통합상담소 교제폭력 상담 인력도 1인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위 사업들은 통합상담소인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소장한영숙)'에서 사업수행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은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폭력으로 인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8-3007~8)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군, 청년예비창업자 5명 모집

시설·홍보비 1800만원 지원

단양군이 올해 청년의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청년예비창업자 5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지역 내 어디서든 창업이 가능하다. 대상은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에 뜻을 둔 19~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지난해보다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도 단양으로 주소지를 이



지난해 청년창업자가 개점한 젤라또 가게.

품과 특산품을 활용한 창업아이템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성을 결합한 고유 콘텐츠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단양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모두 26명의 청년창업자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7명의 청년에게 창업지원금 1억600만 원을 지원했다.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청년희망센터(가칭 단청마루) 건립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선정됐다. 군은 청년희망센터 건립을 통해 전문적인 청년창업가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보비와 임차료를 지원한다. 단 2년간 점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상

충주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충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억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

료 인상,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체납으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

관외 고시한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로 매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용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충주시, 취약계층에 농식품바우처 지급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6개월간 지급

충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지역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22억을 투입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0가지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월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 가구 8만원이다.

지원금은 매월 1일 바우처 카드에 충전되며 당일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GS25, GS더프레시, 충주시로컬푸드직매장에서 국내산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 가공 채소류, 산양유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지원 희망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금 인상

16억6000만원 예산 편성... 9000원 지원

음성군은 올해부터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급식지원금 단가를 현재 80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9000원으로 지원한다. 군은 올해 아동급식지원 관련 예산으로 16억6000만 원을 편성해 지난 1월 기준 818명(지역아

동센터 포함)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의 아동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음성군 지역화폐 가맹 음식점과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전식 아동 급식카드가 제공된다. 지원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가 아동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추천할 수도 있다.

진천군, 복지안전망 구축 박차

적극적인 취약계층 발굴 프로그램 가동

진천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금융 연체 등 18개 기관의 44종 빅데이터 자료와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내 위기 정보 입수대상자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 중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중 읍·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유선을 통해 위기 사실을 인지

(1차)하고 가정방문(2차)을 통해 위기 정도를 파악한다. 군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해 3028가구를 찾아냈고 그 중 정밀 도우미가 필요한 1894가구에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 및 생거진천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정기 조사를 진행하고, 발굴한 대상자가 유·무선 전화에 일정 기간 통화기록이 없으면 대상자에게 자동응답 전화

(ARS)를 거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도입을 완료했다. 실시간 대상자 안부 확인은 물론 위험 상황 알림서비스를 구축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통해 긴급 위기 사유를 해소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 복지 지원단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제도에 근거한 생계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 사업을 연계해 자활을 돕고 있다.

제천시, 청소년 '마음 전달함' 운영

친구 관계, 속마음 등 고민 말하면 답장 도착

제천시는 지난 1일부터 청소년 마음 전달함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마음 전달함은 2023년 제6회 제천시 청소년정책 제안콘서트에서 제안된 것을 채택한 정책으로 제천시청소년센터(관장 안태영), 장락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영수)에서 운영한다. 정식 운영에는 지난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마음 전달함을 새롭게 제작하고, 제천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경희)에 바로 연계하면 것을 각 담당자가 내용에 따라 분류 후 필요시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긴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방법을 추가했다. 이용 방법은 시범운영과 동일하게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고민을 적어 마음 전달함에 넣으면 16일부터 말일까지 각 담당자가 수거 및 답장을 작성하고 다음 달



1일에서 15일까지 각 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여성가족과(☎043-641-5472)와 제천시청소년센터(☎043-642-8360), 장락청소년문화의집(☎043-642-8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음은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캔,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증평군,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 '전국 4위'

2022년 대비 57명 증가해 4개 시군 중 1위 눈길

증평군의 지난해 출생아수 증가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위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증평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21명으로 전년 164명보다 57명이 늘어나 34.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남 강진군(65.6%), 전남 곡성군(40.9%), 전남 장성군(35.2%)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출생아 수로는 4개 군 중 1번째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늘어난 곳은 48곳, 줄어든 곳은 178곳이었으며, 총 출

생아수는 23만503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589명(7.7%) 감소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단위에서는 전년보다 117명(1.5%) 증가한 충청북도만이 출생아 증가 단위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히, 117명의 출생아 가운데 48.7%에 해당하는 57명이 증평군에서 출생해 충북 출생아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해 군은 출산양육수당과 아이 낳기 기쁜 돌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출산시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출생아 증가율 TOP 4.

이재영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탄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충북 내 군 단위 중 최대인 2억4000만원 지원

괴산군이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이는 충북도 내에서 청주시 다음으로 가장 큰 예산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는 최대이다. 괴산군은 노인 인구가 39.85%를 차지하는 만큼 취약노인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하며,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으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응급관리요원 출동건수는 총 960건이며, 이 중 63건이 응급호출로 119구급대 및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해 긴급상황에 대처했다. 또한, 군은 지원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응급관리요원)을 작년 대비 1명 더 추가해 4명을 투입한다. 군은 인구대비 토지가 넓고 장비 설치 및 관리 대수가 많아 기존 정원으로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도에서 유일하게 군비를 추가 편성해 응급관리요원을 증원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인현 군수는 "괴산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추가 예산을 투입해 취약노인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분석을 통해 예방적 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괴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 ☎043-834-3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

연간 최대 15만6000원... 1인당 월 1만3000원

증평군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 형태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만 24세(2000.1.1.~2015.12.31.)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만3000원, 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변동이

없는 한 만 24세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 후 반드시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신한, KB국민)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누리집(www.jp.go.kr)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군, 농업인 위한 다양한 지원 펼쳐

농기계 현장순회 수리·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 추진



영동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팀이 오지마을을 찾아 농업기계를 수리하고 있다.

영동군이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농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2월19일부터 9월 27일까지 170회에 걸쳐 농업기계의 수리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가를 방문해 경운기, 관리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을 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개당 단가 5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 군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업기계를 편리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본소와 지소 등 3곳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군은 지난 2022년 조래 개장을 통해 농가의 책임과 번성의무를 완화했다. 이외에도 1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나 여성 단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연간 2회까지 경운, 정지, 수확 작업을 농업기계 임대료만 받고 지원한다. 신청은 영동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43-740-5551~5)로 가능하다.

옥천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목욕비 등 연간 8만원... 반기별 4만원씩 지급

옥천군은 위생관리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500여명이다. 지급방법은 목욕·이미용 전용 향수OK카드를 통해 연간 8만원을 반기별 4만원씩 나눠 지급한다. 군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9월 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대한미용업중앙회 옥천군지부, 대한이용업중앙회 옥천군지부, 목욕업 3개소 및 이미용업 9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상반기 신청·접수는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생관리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목욕, 이·미용 카드'

신청 당일 전용 향수OK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날부터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옥천군, 매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셋째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군청 종합민원과

옥천군은 주민의 권의 보호를 위해 올해도 무료 법률상담을 운

영한다고 밝혔다. 옥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매일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운영된다.

상담희망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종합민원과 민원팀 (☎043-730-3125)으로 사전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선정

일정 요건 갖춘 특례 비자 발급, 우수 외국인력 30명 확보

보은군은 법무부에서 주관한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우수 외국인력에 최중 선정돼 지역 우수 외국인 30명의 쿼터를 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체류자격을 완화한 특례 비자(㉒)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비자를 발급받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확대 및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이 가능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지역사회의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수 외국인의 조건은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군내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돼 있고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범죄경력이나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고 토박이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수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군내 기업 및 도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연 4회 미만 병원 방문 시 납부액 10% 페이백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만성질환자에게는 건강유지를 잘하거나 예방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동안 건강한 청장년은 병원에 가지 않는데도 매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여서 불만을 내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방문이 연간 4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건강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

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 대상 확대

18세 이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지원 가능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

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

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

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월 9일 이전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연간 258만명에게 13만원 지원

취약계층 문화비 부담 감소 위해 지원금 2만원 인상



2024 문화누리카드 주요가맹점

- 공연·전시** 인터파크, 티케팅플러스, 예술의전당, 리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 철도·항공** 코레일, SRT,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 테마파크** 롯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이월드, 아쿠아플라넷
- 숙박** 여기어때, 아놀자, 아고다, 베니키아
- 영화**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넷플릭스, 왓차, 티빙
- 도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네이버랩톤
- 스포츠관람** 프로스포츠 구단(배구, 농구, 축구, 야구) 등
- 스포츠용품** 생생(공유 리본드), 가네사 요가프랑스, 삼천리자전거

※ 2024년부터 마흔네살(2000.1.1 이후 출생)자와 문화누리카드 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할인 및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

2024년 문화누리카드 주요가맹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행·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국비 2397억원, 지방비 1006억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전화(☎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베'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

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000여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 외에 생체인증(지문, 얼굴) 로그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연도 내에 수시 충전과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족 복지 한눈에 '종합 안내서' 발간

출산·돌봄·주거·교육·금융 서비스 정리



전화상담: 1644-6621, 가족센터: 1577-9337,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2024년 한부모 가족 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이 각종 복지 서비스 내용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내서는 실물 소책자와 전자책 형태로 제작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단체에서도 볼 수

있다. 종합 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분야 지원 내용과 신청법을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진료비·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 시설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가정 양육수당 같은 복지 급여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

육아 나눔터 등 돌봄 지원 사항이 실렸다. 시설·주거 분야에서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가 소개됐다. 교육·취업 분야에서는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저금리미소금융,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담았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종합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2024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신청 접수

보일러·에어컨 교체 등 5만4000가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6일부터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 5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에어컨 등 고효율

난방기와 냉방기를 설치해주거나 창호 공사 등을 통해 주택 단열 기능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외에 사회복지시설 750곳도 지원 대상이다. 난방 기기의 경우 가구당 240만원까지, 냉방 기기의 경우 가구당 75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모두 1천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원을 원하는 이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냉방 지원은 이달 26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하며, 난방 지원은 3월 중순 이후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어려운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약중독 평가,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밀도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

검진항목(6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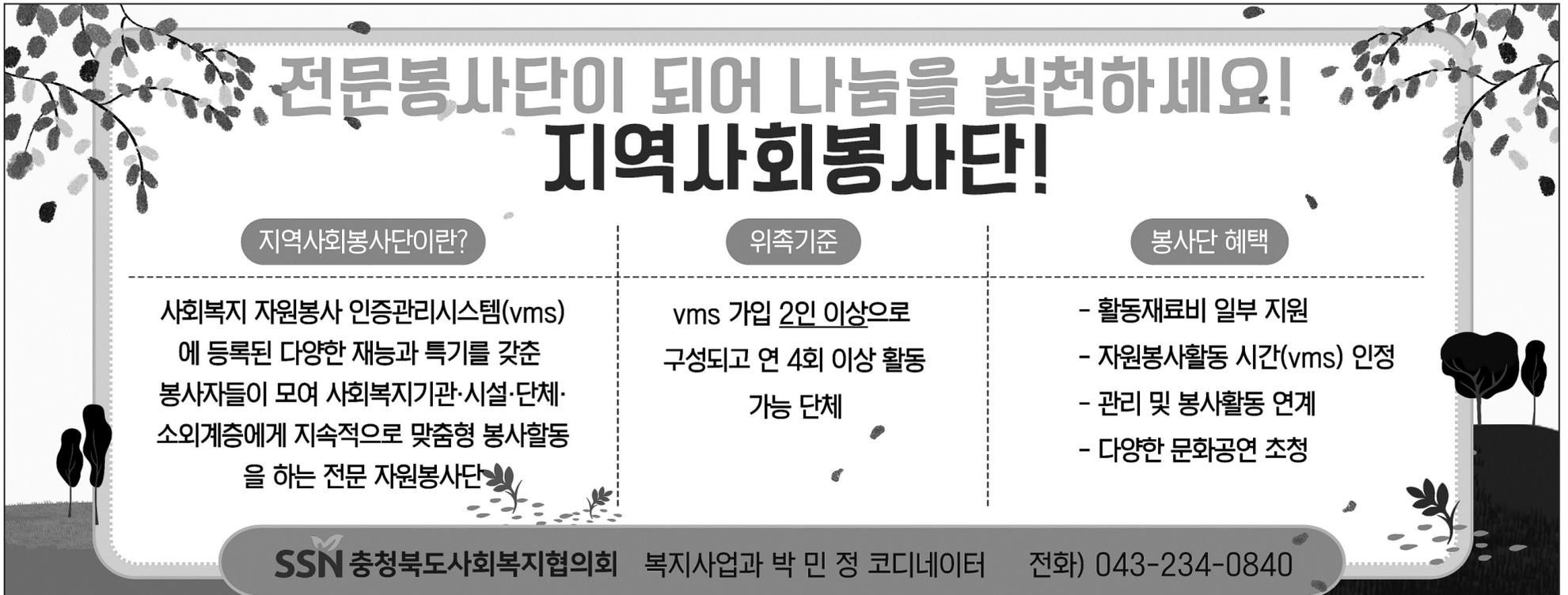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용 90% 지원

대상 3만명 확대, 5개 영역 10개항목 2년 주기 검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 3만명으로 늘리고 검진서비스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7개 시·군으로 확대해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충북의 대상지역은 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

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또한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 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

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참여 문의를 하면 된다. 해당 지역 소재 병년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02-490-2098)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세부 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적 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 사랑의 온도탑 182도 '전국 최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다.

모금액 173억5400만원... 62일간 대장정 마무리 어린이집 원아부터 대기업체까지 온정 손길 이어져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희망2024나눔캠페인이 모금액 173억5400만원이 모여 사랑의온도

182도를 달성하면서 6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진행된 희망2024나눔캠페인 폐막식은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최

승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과 이민성 충북모금회장, 모금분과 실행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고사리손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며 모은 수익금을 기부한 어린이집 원아부터 플라마켓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한 청소년들, 행정복지센터에 편

지와 봉투를 두고 간 익명의 기부자, 매월 급여의 우수리 금액을 기부한 도내 공무원들, 대기환경개선(ESG사업) 특별기금과 임직원 성금을 기부한 SK하이닉스, 변함없이 큰 기부를 하고 있는 LG생활건강 등 대기업과 에코프로, 우진전기(주), 한국드라이베어링(주)과 같은 충북의 대표 성장기업 등 수많은 도민과 기업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들이 모여 충북모금회는 희망2024나눔캠페인 목표모금액 95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173억5400만원을 모금하게 되었다.

캠페인 기간동안의 성금내역을 보면 현금기부는 145억1800만원(83.7%), 물품기부는 28억3600만원(16.3%)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인 기부금은 전년 대비 8500만원 소폭 증가한 28억9200만원(16.7%), 법인 기부금은 SK하이닉스 특별기금에 힘입어 77억800만원 증가한 144억6200만원(83.3%)으로 나타났다.

이민성 회장은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모여진 도민들의 정성을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과 진천군 장애인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4일 실시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안전의식 증진 최선"

안전교육체험관과 업무협약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형완)은 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관장 백순용)과 진천군 장애인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실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 장애인 및 복지관 종사자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다지고자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진천군 지역 장애인, 복지

관 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체험 진행,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소방활동체험 및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형완 관장은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제공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백순용 관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안전 관련 프로그램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은 진천을 문화로 81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어린이 교통공원을 시작으로, 2016년 7월에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 개관되어 사회·자연 재난, 생활안전 등 9개 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의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센터 운영

검진 장비·수어통역사 배치

청주의료원(원장 김영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지난 15일 운영을 시작했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인화 검진 장비, 이동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 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30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16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

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당연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2026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연 지정된 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반찬·생필품 등 지원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종)는 지난 5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실시된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는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 시민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입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마련됐다.

나눔 보따리는 반찬류와 생필품(식용유, 삼프, 치약, 칫솔, 비누 등) 15만원 상당으로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20명에게 전달됐다. 이우종 센터장은 "아름다운 가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5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를 진행했다.

게 신분점에서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나눔 보따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홀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북혈액원, '헌혈 활성화' 간담회

홍보위원 3명 위촉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원장 허혜숙)은 지난 14일 헌혈홍보위원 신규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헌혈 협조 확대 방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고교생 헌혈 참여 증진 방안, 미래 헌혈자·중장년층 헌

혈자 유치 방안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등 헌혈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위촉식에서는 이종학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장, 김경화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유지훈 충북대학교 교육방송국장의 3명이 신규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기존 8명의 위원과 더불어 총 11명의 헌혈홍보위원이 충북도내 헌혈 문화 확산과 헌혈 증진을 위해 홍보 활동 역할을 수행할 예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지난 14일 헌혈홍보위원 신규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이다. 허혜숙 원장은 "헌혈홍보위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2024년에도 헌혈 문화 확산과 헌혈 인프라 형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장애인복지관, 고독사 예방사업

Go life 도움함 설치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한)은 고독사 예방사업 'Go life 도움함 설치' 첫 시작을 충주지역자활센터 'CU충주여성여고점'과 함께하기로 했다.

충주지역자활센터(관장 김승호)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위한 전문적, 체계

적 지원 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Go life 도움함'의 지원 플랫폼과 상호 밀접한 관계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고독사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의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Go life 도움함'.

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충청북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충주시 거주 1인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CU충주여성여고점'은 충주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중 하나로 2023년 5월부터 호암동 충주여성여고점 후문에 위치하여 참여자의 자활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개발이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번 'Go life 도움함' 첫 설치 장소로 가장 안성맞춤일 것이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

www.043w.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복지광장



강 동 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과장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라는 팬데믹으로부터 극복했다고 하지만 끈이어 찾아온 장기간의 물가 상승과 불경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많이 팍팍해졌다고 한다.

이런 고물가속에서는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간 생활의 기본 삼대 요소 중 하나인 먹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매일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난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다시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결식아동 등의 취약계층

층 급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되었다.

푸드뱅크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이미 생겨났으며, 아직 먹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식품들이나 생활용품 등을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이다.

1998년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과천)의 푸드뱅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7월 '푸드뱅크 활성화가 정부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되면서 관련 법령 근거 마련, 민·관 참여활성화 등의 토대가 되었고 푸드뱅크 사업은 대한민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의 한 축이 되었다.

2024년 현재 푸드뱅크 사업은 전국푸드뱅크를 중심으로 17개 광역푸드뱅크, 450여개의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으로 조직되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물적나눔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작년 한 해에는 개인 이용자 약 31만 명과 사회복지시설 약 1만3000개소에 2,469억원 상당의 기부식품 등을 전달하였고 이 수치는 폐기되는 식품 등을 방치하여 약 7만3000톤의 탄소배출 회피 효과가 있고 소나무 45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게 지난 26년간 꾸준히 푸드뱅크로 모인 누적 기부액은 2조8000억원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은 누구든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내방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푸드뱅크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 1년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용 방법은 담당자가 식품을 직접 개인이용자 가정 등으로 전달해 드리는 푸드뱅크와 매장이 설치된 곳으로 개인이용자 본인이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가져가는 푸드마켓 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계에 식료품비 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분들이 푸드뱅크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분들도 단순히 무작위의 식품을 받는 것에 국한되기도 하는 식품의 종류와 선택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반영되기를 원하지만 현장에서 그리 녹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는 식품제조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원자재 값 상승과 매출 하락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품제조업체 전반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푸드뱅크에 대한 요청사항은 늘어나는 반면 식품 기부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맞물려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푸드뱅크 사업은 민·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부기업들과 후원자분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는 봉사과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기부식품 등에 대한 분류 및 재포장 작업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개인이용자 가정에 전달해드리는 역할이거나 그 전달 과정에서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거나 이 모든 역할은 푸드뱅크 사업 담당자 혼자서 역량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간영역에서의 한계점은 공적영역인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보완할 수도,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뱅크 사업은 모든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끝으로, 지난 IMF 외환위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온정의 손길과 관심으로 푸드뱅크라는 끈끈한 전달체계가 잘 운영되어 왔다. 최근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상황까지 가중되었지만 지난 26년간 그려왔듯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관심을 보내준다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분들도 푸드뱅크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지포럼

사회복지현장 내에서의 기후변화와 인권



김 성 우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원장

기후 변화는 결국 인권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들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결국 인권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정의를 내리며, 인권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권리주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존엄한 권리인 것이다.

인권에 기반한 기후위기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2억6200만명의 사람들에게 재해를 입혔는데, 이 중 98%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었다.

또한 UN 인권 최고 대표(OHCHR)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평균 온도가 1-3℃ 범위 내에서 증가하면, 개도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과 생계를 위해 기후에 민감한 자원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하게 된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작지의 축소 및 생장기간의 단축, 수확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에서는 영양실조의 위험이 증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농작물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물 부족과 기온상승으로 인한 식량 안전이 위협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의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후위기의 현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폭염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은 생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한파로 노숙인들의 목숨은 위협을 받고 있다.

2019년에 발간된 유럽의 '환경건강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된 현상들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보다 5배나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기후위기 앞에서 그만큼 가난한 우리들의 이웃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UN인권최고대표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와 인권과의 깊은 연관성을 말하며, 권리의 보장을 위해 세 가지 국내 차원의 권리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첫째, 기후변화 관련 사건이 국가의 가용자원에 추가적 부담을 주더라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둘째, 기후변화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참여권 및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포함한 절차적 권리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점과 마지막 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특히 정책적 해결방안이 사회 주변부 및 취약한 집단의 필요에 집중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수준에 대한 보편적 공급에 대한 인권 기준이 기후변화 정책수립에 있어 원칙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정의내린다.

사회복지사는 사회구조적 부조리에 희생당하는 이들을 위한 변호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상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미시적 차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문화, 환경에 관심을 두고 이젠 다들 행성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거시적 차원의 역할도 사회복지사의 몫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때론 자신들이 당한 인권의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OHCHR가 강조하듯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참여권 및 사법절차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 자주 마주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변호인이 되어 주는 것, 이제 사회복지현장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 아닐까 싶다.

현장의 목소리

"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입니다"



김 유 립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대리

더 넓은 복지, 더 깊은 돌봄을 실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는 곳이자, 노인복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일터이다.

두 번의 이직을 경험했지만, 직장생활과 같은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져본 적은 처음이며 어느덧 3년차가 되어가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신청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6권역으로 청주시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청주경노인복지관,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 중점·일반군으로 나눠진다.

중점돌봄군은 직접서비스 제공 외에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며 이용자가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들이 방문 시 지원하고 있다.

일반돌봄군의 경우 안전안부확인 및 말벗지원, 생활교육(건강·보건·영양·우울·인지교육), 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나들이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직접서비스가 제공된다.

휴먼케어는 특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으며 고독사, 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필요에 따라 만 60세 이상 지원 가능)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에 따라 은둔형과 우울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집단활동(집단프로그램, 집단치료·상담, 나들이, 자조모임 등),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 사후관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부터 청주시 시범사업으로 청원구 어르신 대상으로 휴먼케어에서 청주형통

합돌봄서비스(병원동행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방문 및 관공서, 은행 등 이용자와 함께 돌봄매니저가 동행하여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병원동행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권역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월 2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중점돌봄군을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이외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주시에서 지원해 준 스타리아 차량 1대로 이동을 하다 보니 신청 건수에 비해 동행서비스를 다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3년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다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매년 실무자 회의를 참여해보면, 기관마다 담당자가 여러차례 바뀌어 있을 정도로 이직률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럼에도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독거 어르신들이 있고, 모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곳까지 더 나아가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에 쉽게 퇴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느낀점은 클

라이언트와의 기본적인 상담 및 행정업무 처리 능력, 자연연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생활지원사의 고충을 청취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월 3회 주간회의, 월 1회 전체 월례회의, 전담사회복지사별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와 1:1로 개별상담시간을 가지고 있다.

간혹 이용자들 중에서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욕설, 폭언 등으로 생활지원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과한 업무 요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꾸준한 소통을 하다 보니,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 간의 견고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프로그램 진행 및 회의의 시야 방향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근무를 하다보면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및 사망소식에 따라 슬픔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하나씩 배우고나가고 스스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도 전담복지사로서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똑똑똑! 법률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보행자용 신호기 미설치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 보행자용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

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소정의 의무를 신경써서 안전하게 운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동정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유응모 회장 취임



유응모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지난 25일부로 제18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직을 시작하였다.

유응모 오송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지남 25일부로 제18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직을 시작하였다. 유회장은 대우재단 충청지역본부장, 통합 제1,2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대우꿈동산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오송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이장희 회장 취임



이장희 회장은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쳐 청주복지재단 이사, 글로벌투게더 이사장, 강동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 교수 등을 역

임했다. 또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학계 이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통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체감도 향상을 중요시하는 협회로서 공약을 실현하기로 약속했다. 이장희 회장은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회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

(사)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 이·미용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총북협의회) 소속 (사)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회장 강종열)은 지난 1월 충북에 위치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방문하여 현직 공군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총 4회 진행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만난 병사분들이 전역 후 감사 인사를 오거나 이발을 하러 매장에 직접 찾아올 때 뿌듯함과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또 2022년부터 2년 연속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사)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는 2022년 6월 총북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이·미용 봉사 외에 정기적으로 의류수선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총북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용자지원 대상질환 확대. 경제적 부담으로 받지 못한 수술, 장기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치료받으세요! Includes a flowchart with 3 steps: 환자 진료, 동행 의료비 대출, 환자가 무이자 장기상환.

복지정보 제공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2024 멘티 기관 모집]
■ 사업명: 2차년도 사회복지종사자 및 기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무지개 복지마스터 멘토링(컨설팅사업)'
■ 신청분야: 멘티 기관
■ 선정기준: 멘티 참여자가 총북협의회 회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로서 1차년도 참여 멘티(기관), 미신고시설 또는 운영전반 실무업무가 미흡한 일반시설, 3인 이하 소규모 시설, 정부 및 외부지원을 받고 있거나 실무업무가 미흡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침지표에 의한 실무업무가 미흡한 시설
■ 특별영역: 2024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 기관,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침지표에 의한 실무업무가 미흡한 시설, 사회복지시설평가 경험이 없는 신생기관
■ 신청기간: 2024년 3월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cbasw2213@hanmail.net) 제출
■ 문의사항: 043-232-2312, 2290

■ 지원내용: 각 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해당지역 메일로 상시접수
■ 지급방법: 지원내용에 따라 지급방법 상이
[밀알복지재단, 2024년 암환자 치료환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대상: 실 거주지와 다른 시, 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조건: 의료기관에서 항암, 방사선 등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
- 경제적 조건: 중위소득 100%미만 대상자
- 우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한부모,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지지체계가 미비한 대상자
■ 지원내용: 1인 최대 13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방법: 1차 50만원 선 지원 후, 대상자 증빙 확인 후 분할지원
■ 신청기간: ~2024.3.29.(금)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선정결과: 신청접수 후 1개월 내 개별연락 예정
■ 참고: www.miral.org

■ 지원내용: 위기가정에게 필요한 항목별 지원금 지원(1가정당 최대 500만원) 및 선정기관 사례관리 지원금 지원
■ 추진절차: NPO 협약->위기가정 지원신청->심사, 선정공고->지원금 지급, 사례관리, 결과보고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www.kbsktw.com)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기아대책 기대드림, 2024년 위기 이주배경가정 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상시
■ 사업대상: 위기 이주배경가정(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이주배경가정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 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 가정
■ 신청방법: 기대플러스 홈페이지(hope.kfh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병원(사회사업실이 있는 상급병원), 학교, 교회 등(개별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심리정서치료 중목 최대 500만원 지원
[한국장애인재단, 긴급지원사업 수요자 신청안내]
■ 사업기간: 연중수시
■ 지원자격: 국내 등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신청기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연 기준 기관당 1명 지원)
■ 지원예산: 건당 최대 300만원
■ 접수방법: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지원 요청사유: 자연재해·재난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지원항목: 자연재해·재난피해, 의료비, 생계비 등
■ 참고: kfpxd.org

[복지넷, 코엑스 아쿠아리움 할인 초청 이벤트]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단체, 사회복지사, 차상위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수급가정, 자원봉사자 1,000명
■ 지원내용: 코엑스 아쿠아리움 단체 할인
■ 응모기간: ~2024.3.20.(수) 23:59
■ 참여방법: 복지넷 홈페이지(www.bokji.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밀알복지재단, 2024년 국내지원사업 안내]
■ 사업명: 정규지원사업(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위기가정 지원), 특별지원사업(가족돌봄청년지원, 오롯이, 청년암환자 지원, 신장이식 수술비 지원, 안면장애인 수술비 지원)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KBS강태원복지재단, 2024년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4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예정
■ 접수기간: 월 2회(1일~10일, 20일~31일)
■ 신청기간: 전국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마을단위 NPO 협약 체결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수급자의 경우, 현재 수급비를 지원 받고 있는 동일한 항목 지원 신청은 절대 불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024년 이·미용 봉사활동 모집]
■ 사업명: 이·미용 봉사활동
■ 지원대상: 이·미용 분야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 접수
■ 문의사항: 043-234-0840~2

자원 봉사자 모집

▶ 2024 대학생 놀이지원단 모집
관리센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53-4493
▶ 시각장애인 캠핑 지원
관리센터: 충주성심병원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843-1432
▶ 생활환경개선, 어르신돌봄 등
관리센터: 청주노인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85-3131

▶ 초등 학습지도 지원
관리센터: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37-1487
▶ 재가노인 식사 배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855-3000
▶ 목욕봉사(남) 지원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902-9188

▶ 세무, 회계 전문상담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16-981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복지만평. 단가. 이창신 www.bokmani.com. Includes a cartoon about food prices and a table showing 2023 per capita food cost standards: 2,800원 for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3,500원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4,300원 for military personnel.